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과정

: 북한의 지원요청부터 참전결정까지를 중심으로

김옥준(계명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은 마오가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을 지원해 달라는 전문을 받아 본 10월 1일부터 사실상 참전이 최종 결정된 10월 13일까지 마오와 중국 지도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참전결정에 도달하였는지를 당시 개최된 주요회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지도부가 한국전쟁 참전 논의한 13일 동안의 5차례의 주요회의를 각 회의에서의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10월 2일 회의 이후 스탈린에게 보낸 모순되는 두 개의 전문에 대한 견해, 조우은라이와 스탈린과의 흑해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회의 전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마오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보았다.

결론적으로, 스탈린과 김일성의 지원요청이 있는 후 10월 1일 회의부터 13일 회의에서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참전을 고집하며 밀고 나간 사람은 마오 혼자였다. 당시 당 정 군 전체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마오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다.

주제어 : 중국의 참전논쟁, 참전결정, 마오의 역할, 흑해회담, 소련의 공군지원

I. 머리말

중국은 북한의 남침에 동의하였으나 사실상 남침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전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남침준비단계에서부터 전쟁과 관련된 모든 일을 스탈린과 협력하여 결정하고 스탈린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탈린의 전략적인 계산아래 스탈린에 의해 주도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은 전쟁 준비단계에서부터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직접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 들이는데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곧 중국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유사시 지상군의 파병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저둥(毛澤東)의 지원약속은 상당히 이념적·제한적인 지원약속이었다. 지상군의 파병도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라는 조건부 약속이었을 뿐이다.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북한의 남침 전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마오로서는 충족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자 미국은 신속하게 그것도 아주 깊숙이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8월 이후의 전쟁전개 양상은 마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발전되고 있었다. 당초 한반도의 전쟁에 직접 참전할 의도도 필요도 없었던 중국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나타나자 참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다. 전황이 급속하게 불리해지자 9월 30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고 스탈린은 즉각 마오에게 북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에 동의하면서 스탈린과 마오가 한 약속이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남침에 동의하면서 참전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미군의 38선 돌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미 38선을 넘고 있었고 미군의 위협이 현실화 되어가자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지원 요청을 받은 10월 1일부터 중국 지도부는 참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논의과정이었다던 10월 9일 미군은 38선을 넘게 된다.

본 논문은 마오가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을 지원해 달라는 전문을 받아 본 10월 1일부터 사실상 참전이 최종 결정된 10월 13일까지 마오와 중국 지도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참전결정에 도달하였는지를 당시 개최된 주요회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소련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선즈화(沈志華), 주지안룽(朱建榮), 데이비드 쑤이(David, Tsui), 세르게이 곤차로프(Sergei N. Goncharov), 존 루이스(John W. Lewis), 서상문, 이종석, 박명림 등의 학자들이 이러한 연구에 성과물을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결정적인 장애가 존재한다. 그것은 중국 측의 자료가 여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주요 지도자들의 회고록과 전사(戰史)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북한의 자료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우선 중국지도부가 한국전쟁 참전 논의한 13일 동안의 5차례의 주요회의를 각 회의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10월 2일 회의 이후 스탈린에게 보낸 모순되는 두 개의 전문에 대한 견해, 조우은라이와 스탈린과의 흑회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회의 전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마오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다만 참전 결정과정에서 논의되고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참전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II.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지원요청

1. 북한의 지원요청 이전까지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입장

북한의 남침계획에 대하여 마오는 김일성의 남침이 내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 대한 무력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며, 중국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오가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하고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그 지원의 범위는 단지 인민해방군의 조선인부대를 북한에 이양해 주는 정도만으로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충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스탈린과는 달리 미국의 직접개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지 미국이 일본의 지상군을 한국에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가능성이 희박한 '미군이 직접 개입하여 38선을 넘을 경우'에 한하여 파병한다는 조건부 지원약속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오의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인민해방군의 재편성과 재배치, 인민해방군 조선인부대의 북한 이양 등을 한국전쟁 참전을 전제로 한 준비단계라고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개입을 기정사실로 북한과 남침을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동의하기 힘들다.¹⁾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에 동의한 후 남침 개시까지의 남침 준비 단계에서 소련과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비하면 중국은 이 준비단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개시 이전까지 중국이 한국전쟁에 직접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찾기 힘들다. 북한의 남침계획단계부터 스탈린과 마오저똥, 김일성이 전쟁을 공모하였다는 주장과 이의 연장선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에 직접개입 결정이 일찍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들은 거의가 스탈린의 남침동의, 마오저똥의 스탈린 남침동의 인지, 남침개시전과 남침개시 후, 그리고 미군의 참전, 미군과 국군의 반격 등 중국

1)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김옥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소련의 전략과 중국의 동의배경: 소련의 남침 동의부터 남침개시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제18집 2호, 2013 참조.

의 참전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의 의미와 이를 중심으로 그 시기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혼돈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안들과 전황의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²⁾

한국전쟁이 전황의 역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8월 중순 중국은 그 때까지 지속해온 국민당 잔여부대의 소탕을 포함한 대만에 대한 공격준비를 일단 보류하고 즉각 중국 인민해방군을 전시 비상 예비동원체제로 전환시키기는 하였으나 마오는 9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군대를 직접파병하는 형식의 한반도 전쟁 개입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전세가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하고 서울이 탈환되면서 중국 역시 미군의 38선 돌파의 우려와 함께 위협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동안 참전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남침준비단계에서부터 소련, 북한과 공모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 동북변방군의 편성과 배치가 참전결정의 결과라는 주장, 소련의 지원에 의한 중국 공군력강화의 의미에 관한 논쟁, 참전결정 시기를 전쟁이 교착상태에 이르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8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보는 견해 등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³⁾

2. 전황의 악화와 북한의 지원요청

한국전쟁은 전쟁 초기 북한의 일방적인 공세에 밀려 낙동강 전선을 형성한 이후 1950년 8월에 이르러서는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국군과 미군이 북한군 정예사단인 제6사단을 마산 근처에서 격파함으로써 이러한 교착상태

도 무너지기 시작하여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9월 15일 새벽, 드디어 마오가 우려하고 있었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였고, 9월 16일부터는 미 제8군의 주도하에 낙동강전선으로부터 총반격이 시작되었다. 인천 지역을 확보한 국군과 미군은 서울, 수원 쪽으로 진격하여 18일 김포비행장을 점령하였고 20일에는 한강을 넘었으며, 28일 마침내 서울 탈환에 성공하였다.⁴⁾ 한미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이은 서울 탈환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전쟁의 주도권은 미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국군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의 대대적인 반격과 함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뒤이은 서울 탈환으로 주력부대의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 인민군은 38선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조차 제대로 배치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9월 27일, 김일성은 니즈량(倪志亮)중국대사를 회견하는 자리에서 “38선 및 그 이북지역에서 수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29일 조우은라이(周恩來)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상중이고, 남부에 있는 조선인민군은 고립되어 있으며, 38선 이북에는 방어부대가 없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적은 곧장 평양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⁵⁾

당황한 김일성은 9월 29일 박헌영과 연명으로 스탈린에게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30일 슈티코프를 경유해 다음과 같은 전문이 10월 1일 새벽 3시경 스탈린에게 전해 졌다.

그로미코 :

존경하는 스탈린동지

(전략) 우리는 동지에게 특별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들은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후 바로 북조선을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적군이 38선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될

2) 위의 글, pp. 71~72.

3)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북한의 남침개시부터 지원요청까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참조.

4)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전쟁(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325~332 참조.

5)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p. 58.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중국과 다른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 국
제용군부대를 만들어 우리의 투쟁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슈티코프
1950. 9. 30⁶⁾

김일성으로부터 다급한 지원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10월 1일 북한에 주재
하고 있던 군사고문 마트비에프와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고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이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38선 이북에서
적과 투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소련군의 직접개입은
불가능하고 국제의용군의 결성과 파견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데 이러한 부대
는 장차 중국 군대가 조직할 것이므로 중국 지도부와 논의하도록 김일성에게
전달하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원조할 책임을 마오에게 전가하였다.⁷⁾ 또
한 북한에 주재하고 있던 소련 기관 및 그 요원들을 철수시키자는 슈티코프의
건의를 승인하였다. 스탈린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소련군을 직접 파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탈린은
마오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어 중국의 직접파병을 촉구하였다.

평양, 소련대사 :

즉각 마오저똥이나 조은라이에게 전달바람

(전략) 본인은 만일 귀하가 당면한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조선을 위해 지원
군을 파견할 수 있다면 5,6개 사단정도를 즉각 38선으로 보내 조선동지들로
하여금 귀하의 부대의 엄호아래 38선 이북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하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부대는 지원군의 신분으로 출동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
히 중국지휘관이 통솔하는 것입니다.(중략)

귀하의 답신을 바랍니다.

6) 이 전문은 10월 1일 새벽 2시 50분 스탈린에게 보고되었다. АВПРФ, ф. 45, оп. 1, д. 347, лл. 41-45(1950. 9. 30).

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6, p. 559.

필리포프⁸⁾

1950. 10. 19⁹⁾

이와는 별도로 김일성은 10월 1일 밤 니즈랑(倪志亮)중국대사와 무관검
정무참사인 차이청원(柴成文)을 급히 초치하여 중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에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 인민군의 작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압록강
변에 주둔하고 있는 제13병단을 파병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¹⁰⁾ 또한 같은
날 김일성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위해 박일우를 베이징(北京)에 급파하
여 “적들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오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출동하여 우리군의
작전을 도와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신을 마오저똥과 조우은라
이(周恩來)에게 직접 전달케 하였다.¹¹⁾ 그러나 박일우는 10월 3일에야 베이
징에 도착하여 마오를 만나 이 서신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미군이 제공
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육로를 이용해야 하였기 때문에 지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²⁾

8) 스탈린의 암호명.

9) АВПРФ, ф. 45, оп. 1, д. 334, лл. 97-98(1950. 10. 1).

10)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1, p. 71, 또한 일부 주장에 의하면 9월 30일 김일성이 평양의 중국대사관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니(倪)대사와 차이(柴)참사를 만나 중국의 출병을 요청하였다는 견해 도 있지만(楊風安·王天成, 『駕駛朝鮮戰爭的人』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p. 63) 그날 밤 리셉션에 참석한 인물은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인 김두봉 이었고, 김일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은 10월 1일 따로 이들을 만났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주지안룡 지음, 서각수 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도서출판 역사넷, 2005, p. 213 참조).

11) 주지안룡, 위의 책, p. 163, 그러나 박헌영이 베이징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楊風安·王天成, 위의 책, pp. 66-67;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X)”, 『전략연구』 통권 44호, 2008, p. 223 참조. 그러나 10월 1일 밤 니즈랑 대사를 만난 자리에 박헌영이 외상의 자격으로 서 분명히 배석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 베이징으로 간 사람은 박일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 주지안룡, 위의 책, pp. 225-227. 이 서신이 마오에게 전달된 시간은 10월 2일 밤이라는 주장이 있다.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 163.

III. 중국 지도부의 참전논의

1. 10월 1일 서기처 회의

10월 1일 새벽 북한의 위기를 구원하라는 스탈린의 파병요청 전문을 받아 본 마오는 저녁 9시 30분 경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서기처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 회의에는 마오와 조우은라이, 주더(朱德), 류샤오치(劉少奇), 런비스(任弼時) 등 당시 서기처 서기(지금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하였다.¹³⁾ 하지만 10월 2일 새벽에 전달되었다고 전해지는 니즈랑 대사로부터 온 김일성의 지원요청 전문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회의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들지만 마오는 이 회의에서 이미 한국전쟁 참전에 마음을 굳혔으며, 참석자들도 참전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에 무리는 없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마오가 회의가 끝난 직후 동북변방군 가오강(高崗)과 덩화(鄧華)에게 보낸 전문을 들 수 있다. 마오는 첫 회의가 끝난 10월 2일 새벽 2시 당일 오후 중공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개최를 지시하면서 가오강에게 전문을 보내 즉시 북경으로 와서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동시에 덩화에게 동북변방군은 원래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적들과 전투하기 위하여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과 준비상황과 함께 즉시 출동가능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¹⁴⁾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참전 쪽으로 기울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은 왜곡된 보고였지만 미군이 38선을 넘었다는 보고였다. 네룽진(聶榮臻)은 “당

시 10월 2일 새벽, 즉 회의가 끝나기 전 미군이 대규모의 병력으로 38선을 넘었다는 왜곡된 보고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¹⁵⁾ 또한 조우은라이도 “10월 1일과 2일의 소식에 의하면 미군이 이미 38선을 넘었으며, 남조선의 군대는 38선 이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 이었다”라고 출병 후인 10월 24일 전국정협 18차 상무위원회 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다.¹⁶⁾ 이는 국군의 38선 돌파를 미군으로 잘못 오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미군은 10월 8일 38선을 넘었다. 그러나 비록 왜곡된 정보였지만 당시로서는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참전하겠다는 중국의 참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전황이 악화되면서 미군이 38선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은 중국 지도부에게는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사실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정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었고, 마오의 주장과 주도로 참전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까지 마오가 주도해 온 모든 군사준비는 한반도 전황의 변화에 따라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서울 탈환 이후 참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의 단계까지 와 있었을 뿐, 의문시 되는 세계 최강의 미 제국주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전의 가능성, 그리고 참전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참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참전에 불리한 조건들이 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다. 참석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마오만이 참전을 원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마오와 조우 두 사람만이 참전을 원했고, 나머지는 참전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¹⁷⁾ 따라서 10월 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된 이 회의는 참전을 원하는 마오의 입장과 즉각 참전에 대한 신중론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13) 이 회의는 중난하이 이넨탕(中南海 頤年堂)에서 열렸으며, 런비스는 병으로 불참했다는 주장도 있다.

14)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3, p. 106.

15)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6, p. 736.

16) 『周恩來文選』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2.

17) Chen Ji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4, p. 281.

것이다. 당내 온건파의 신중론에 부딪힌 마오는 이후 참전문제 자체를 상당히 고심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마오가 참전을 주저했다기보다는 참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했을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2. 10월 2일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

(1) 마오의 참전 결심

당시 마오가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10월 1일 서기처 회의에서 참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 된 이상 자신의 의사를 순조롭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참전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즉각 참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하여 신중론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월 1일 회의 이후 계속 지도부의 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10월 2일 회의에서 마오는 자신이 이미 참전 결심을 굳힌 것을 감추려하지 않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이는 전날 소수의 서기들만 참석한 서기처 회의에서 신중론이 제기 되었지만 거의 참전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국 확대회의를 거치면서 마오는 참전 신중론자들이 자신의 예상외로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월 2일 오후 3시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는 전체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외교사 연구실에 의하면 마오는 이때 이미 참석자들에게 중국 인민해방군을 ‘항미원조 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북한으로 파병한다는 결정을 담은 ‘내부지시’를 돌렸다고 한다.¹⁸⁾ 마오는

이 회의의 서두에서 “조선에서의 상황은 심각하다. 따라서 금일 토의할 사항은 조선전쟁에서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파병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파병하는 것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호전시키는 핵심적인 관건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시급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파병 일시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지휘관에 임명할 것인가이다.”¹⁹⁾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회의가 한국전쟁 참전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을 실행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임을 밝혔다. 이러한 마오의 언급은 참전의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를 말해준다.

이 회의에서 ‘미군과 미국의 괴뢰 이승만 군대와 싸우기 위해 조선에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보내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10월 15일을 출발일로 정했다.²⁰⁾ 누구를 지원군 사령관에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오는 당초 름바오(林彪)를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름바오는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최정예부대인 제4야전군을 지휘해 왔고, 지원군의 주력부대인 제13병단도 그의 휘하에 있었다. 그러나 름바오는 파병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빙자하여 그 직위를 고사하였다. 이에 마오는 차선책으로 시안(西安)에 있던 쑹더화이(彭德懷)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즉시 상경을 지시하였다.²¹⁾

이 회의에서 참전 일시와 참전 지휘관이 결정된 것 등을 볼 때, 마오의 참전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확실하게 표명되었던 회의였으며, 이는 중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회의의 서두에서 동 회의의 목적을 ‘파병일시와 파병사령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마오 자신의 결심을 공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 파병에 대해

18) 外交部外交史研究室, 『當代中國使節外交生涯』 第1輯,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 p. 94; 서상문, 위의 책, p. 191에서 재인용.

19) 『彭德懷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1981, p. 257.

20) 張希, “彭德懷受命率師抗美援朝的前前後後,” 『中共黨史資料』 第31號(1989. 10), p. 127; 세르게이 콘차로프,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옮김,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p. 327에서 재인용.

21) 『彭德懷傳』, 北京: 當代出版社, 1993, p. 400.

찬성과 반대의 격론이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서 마오가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스탈린에게 다음절에서 언급되는 잠시 출병을 보류한다는 전문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²²⁾ 스탈린에게 보낸 출병보류 전문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절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데 있었기 때문이다.

(2) 모순되는 두 개의 전문

10월 2일의 회의를 마치고 마오는 스탈린에게 보내는 두 개의 상반된 전문을 작성하게 된다. 그 하나는 파병하기로 하였다든 전문(이하 A전문)이고 다른 하나는 파병을 보류한다는 전문(이하 B전문)이었다. 그런데 A전문은 중국 측 자료에서만 발견 될 뿐 소련 측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B전문은 중국 측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소련 측에서만 발견된다. B전문은 당시 로신 소련대사가 마오와의 회견 결과를 정리하여 주중 소련대사관에서 보낸 것이어서 중국 측 자료에서 발견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A전문이 소련 측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전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²³⁾

이 두 전문을 놓고 마오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밝혀보기 위하여 두 전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A전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⁴⁾

① 중국은 지원군의 이름으로 미국과 그 앞잡이 이승만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하였음. 한반도 전역이 미국에게 점령되면 조선의 혁명세력이 철저히 패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략자가 기세등등하여 동양 전체가 불리하게 될 것임. ② 미군 등을 섬멸하고 몰아낼 준비를 갖추는 문제 해결해야 하고, 중국 군대가 조선에서 미군과 충돌하면 미국의 해·공군이 중국의 연안

22) 이러한 주장은 주지안룡, 위의 책, pp. 225~228 참조.

23) 이러한 견해에는 David Tsui, 주지안룡 등이 동의하고 있으며, 선즈화는 A전문만을 주장하고 있다.

24) 세르게이, 위의 책, pp. 327~329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임.

도시를 폭격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임. ③ 중국 군대가 조선에서 미군을 섬멸하고 조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미군을 섬멸할 수 있으면 정세는 혁명진영과 중국에 유리하게 바뀔 것임.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전쟁은 대규모로 확대되거나 장기전이 되지 않을 것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의 경제 재건계획이 방해를 받아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임. ④ 남만주에 배치되어 있는 12개 사단에 대해 10월 15일에 출동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하였음. 초기 단계에는 방어 전투만 수행하면서 소련의 무기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릴 것임. ⑤ 미군에 비해 우리의 무기와 장비는 극도로 열악함. 적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우리는 겨우 조종사훈련을 시작하였으며, 51년 2월까지 300대의 항공기만을 투입할 수 있는 수준임. 미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4배 이상 많은 병력과 2배 이상 우세한 화력을 필요로 함. ⑥ 24개 사단을 이동 중임. 이들 부대들을 내년 봄과 여름에 조선으로 투입할 예정임 등이었다.

다음으로 마오가 로신을 통해 10월 3일 새벽 스탈린에게 보낸 B전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 즉 “당초 우리는 적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했을 때 수개 사단의 지원군을 북조선으로 이동시켜 조선동지들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였음. 그러나 다시 신중하게 고려 해본 결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극도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엄중한 결과로서 첫째, 수개 사단으로는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우리 군의 장비는 낙후되어 있으며, 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 적군은 우리군의 퇴각을 압박할 것임. 둘째, 미국과 중국과의 공개적인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소련 역시 이로 인해 전쟁에 휘말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됨. 셋째,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공개적인 충돌이 야기 되면, 우리의 평화건설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은 전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 할 것이라

25) АВПРФ, ф. 45, оп. 1, д. 334, лл. 105-106.

언급하고 지금으로서는 자제하고 출병을 잠시 보류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으며, 당분간 수세에 처하게 될 조선은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여 유격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우리는 귀하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함. 만일 귀하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즉시 조우은라이와 린바오둥지를 귀하의 휴양지로 예방하게 하여 귀하와 이 사안에 대한 토론과 중국 및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게 할 것임”이라 덧붙였다.

이러한 B전문을 보내면서 주중 소련대사 로신은 마오의 태도변화에 대해 “중국은 작전능력을 구비한 5,6개 사단 이상도 파견할 수 있음. 중국인들의 입장변화의 원인은 우리도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은 복잡한 국제정세, 조선상황의 악화, 영미동맹이 음모를 꾸며 네루(Nerhu)를 통하여 중국인들에 대해 불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인내와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등임”이라는 의견을 달았다.²⁶⁾

결과적으로 마오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참전유보를 통보하는 B전문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특히 마오가 이미 한국전쟁 참전에 결심을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 스탈린에게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반대로 참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참전 유보의 뜻을 담은 전문을 보낸 것인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 데이비드 쑤이는 A전문의 초안을 작성한 후 미군이 아직 38선을 넘지 않았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⁷⁾ 이의 근거로 “그는 미군이 38선을 넘을 때까지 한국전쟁에 군사력 개입을 한다는 결정을 실행하지 않고 한 번 더 억지에 의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중국 측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조우은라이는 10월 3일 새벽 인도대사 파니카를 만나 미군의 38선 돌파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데이비드 쑤이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다. 즉 “미군이 38선에서 멈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면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나 중국지도부는 미군이 그곳에 머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명백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역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의 38선 돌파 여부는 마오에게 있어서 이미 참전결정의 주요변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주지안룽은 그 이유를 2일 중공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참전에 대한 격론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마오가 동 회의에서 강력한 참전반대의견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⁹⁾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일 회의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마오의 확고한 참전결심을 기반으로 참전일시와 참전사령관을 결정한 회의였다. 따라서 2일 회의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찬반의 의견이 비교적 자유롭게 개진된 회의는 4일 회의에서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10월 1일과 2일 회의에서 우리는 당시 참전신중론자들의 의견이 일부 개진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무기·장비가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과의 대적은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를 주로 제기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해 마오는 스탈린의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참전과 소련의 지원을 면밀히 연계시켜 소련으로부터 최대한의 참전이익들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두 전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두 전문 모두에서 공통된 마오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참전의 조건으로 소련의 무기와 장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특히 소련공군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전문은 참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목적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A전문은 참전 할 테니 무기와 장비, 공군지원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고, B전문

26) 위의 전문.

27) David Tsui, 위의 논문(X), p. 229.

28) 李越然, “我在周總理身邊工作的偏斷回憶.” 外交部外交史編輯會編, 『新中國外交風雲』, 北京,

1990, p. 97.

29) 주지안룽, 위의 책, pp. 217~227 참조.

은 중국 군대가 무기와 장비가 낙후되어 있어 참전할 여건이 안 되니 중국이 참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위의 두 전문 모두에서 스탈린의 역할을 요구하고 스탈린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미 참전을 결심하고 있었던 마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전에 긍정적인 A전문과 부정적인 B전문 중 전략적으로 B전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입장 표명이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가를 저울질 한 협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오가 B전문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한국전쟁에 파병하고자 하는 결심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니다. 또한 당시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결정과정을 고려해 볼 때, 참전반대자와 신중론자를 설득하는 것이 참전결정에 필요조건을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었다.

IV. 참전결정의 당론 확정과 통보

1. 10월 4일 회의 : 찬반의 논쟁

10월 4일 오후 3시 또 다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이 회의는 5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5일 오후 또 다시 속개되었다. 이 회의에는 주더, 류샤오치, 조은라이, 린비스, 천윈(陳雲), kang성(康生), 가오쑹, ping진(彭眞), dong비우(董必武), 린버취(林伯渠), ding샤오핑(鄧小平), ping더화이, 린바오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오는 먼저 한국전쟁 개입 일자가 10월 15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한국전쟁 참전의 불리한 조건과 파병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자유롭게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³⁰⁾

이 회의에서 참전 반대의견으로 주로 제시 된 것들은 국공내전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토지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국민당 잔당을 여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일부 인민해방군과 민중이 전쟁에 지쳐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미군에 비해 무기와 장비가 질적·양적으로 현저히 뒤져있고, 제공권과 제해권도 없다는 것 등이었다.³¹⁾ 특히 린바오는 미군과 대적하여, 그것도 타국에 출병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참전에 신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³²⁾ 마오와 조우가 참전에 적극적이었다면 네룡진과 린바오가 대표적인 참전반대자였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참전 신중론과 참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회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파병에 반대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열거하였으며, 회의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³³⁾

이에 대해 참전 적극파들이 주장하였던 이유들은 미국이 3개의 방향(한반도, 타이완,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중국을 침공하는 전략을 타파하지 않으면 중국본토까지 위협받을 것이며,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빠를수록 좋고, 적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면 방어선이 길어지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참전해야 대의 명분이 있고, 미국과 유엔군 역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을 청취한 후 마오는 “여러분들이 언급한 것 모두가 이유가 있으나 이웃이 국가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파병결심이 확고함을 내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ping더화이가 참전지지에 결정적인 발언

30) David Tsui, 위의 논문(X), p. 232.

31) 『彭德懷軍事文選』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pp. 320~321.

32) 楊風安·王天成, 『駕駛朝鮮戰爭的人』,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p. 81.

33) 師哲, 『在歷史巨人身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p. 494.

34) 주지안룡, 위의 책, pp. 239~240.

을 하게 된다. 2일 회의에서 참전 지원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평더화이는 4일 오후 5시경 회의장 도착했으나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5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마오가 평더화이에게 발언을 요청하자, 평더화이는 “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병은 필요하다. 큰 손해를 입더라도 해방전쟁을 몇 년 늦게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압록강변과 대만에 미군이 버티고 있다면 그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구실을 찾아 침략할 것이다”라고 적극 참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³⁵⁾ 발언이 끝나자 마오는 “어떠한 위험과 곤란이 있더라도 미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즉시 출병해야 한다. 평더화이 동지를 지원군 총사령관에 추천하며, 출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회의 후 평더화이 동지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³⁶⁾라고 언급하였다. 마오의 이 한마디에 사실상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5일 저녁 마오는 조은라이, 가오깡, 평더화이와 만찬을 가지고 한국전 파병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기서 마오는 가오깡과 평더화이에게 선양에 도착하는 즉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중앙의 의견을 전달하고, 10월 15일 북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³⁷⁾

2. 10월 6일 회의 : 당론 확정

10월 5일, 참전유보입장을 밝힌 마오의 10월 3일 전문에 대한 스탈린의 회답 전문이 접수되었다. 이 전문에는 스탈린이 마오를 최대한 설득하여 한국전쟁에 참전시키려 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³⁸⁾ 먼저, 스탈린은 동 전문에서 4가지의 이유를 들어 중국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5~6개

35) 彭德懷, 『彭德懷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1981, p. 258.

36) 위의 책.

37) Chen Jian, p. 185.

38) 에프케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pp. 121~123.

사단을 한반도에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 조선 사태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미국은 현재 대규모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본은 군국주의세력이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소련의 동맹국인 중국에게 한반도문제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 문제에 대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협상은 조선에 유리할 것이며, 적은 조선을 군사기지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이유로 결국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단독 강화조약체결을 거절당할 것이며, 일본제국주의의 부흥과 일본을 극동지역에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기도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스탈린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중국은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 역시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대만을 자신의 군사기지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승산 없는 장개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나 미래의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여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있고 이승만이 한반도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대륙에 교두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전문에서 보듯이 스탈린은 한국전쟁에 대만문제까지 개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오와 중국인을 자극하는 표현까지 구사하면서 마오의 참전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마오는 이 전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무렵 마오에 있어서 스탈린의 반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더 시급한 문제는 당내 참전반대파와 신중론자들을 설득하여 한국전쟁 참전을 명실상부한 당론으로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10월 6일에는 두 회의가 열렸다. 그 하나는 조우은라이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신분으로 소집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였고, 다른 하나는 오후 늦게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였다. 10월 6일 아침 조우는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참전을 전제로 한반도 파병을 위한 동북변방군의 이동, 노후된 무기와 장비의 교체, 병참문제 그리고 평터화이 지휘부 구성 등에 관하여 논의되었다.³⁹⁾ 이 회의에는 주더, 평터화이, 네룡진, 린바오 및 참전과 관련된 부문의 관계자들이 거의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린바오가 여전히 참전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조운라이는 “정치국회의의 결정은 따라야 하며,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적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정부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출병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 중앙, 마오주석이 결정을 내린 이상 집중하여 생각할 것은 출병 후 어떻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⁴⁰⁾ 전날 마오, 주더, 평터화이, 가오강이 협의한 안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순조롭게 결론을 내려 네룡진 총참모장 대리를 실행책임자로 결정하고 폐회되었다.

이어서 오후 늦게 속개된 중앙정치국회의의 의의는 4일 회의에서 나타난 반대의견과 신중론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져 한국전 참전이 당론으로 확정된 회의라 볼 수 있다. 마오는 미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지금 개입하는 것이 가장 적기임을 강조하였고, 평터화이는 마오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전에 신중론을 펴고 있던 주더,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이 주전과의 전략과 승전 가능성 제시에 공감함으로써 ‘즉각 출병’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⁴¹⁾ 이에 따라 그 때까지 소극적인 입장과 신중론을 펴고 있던 여타 정치국원들이 참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 다시 말해 중국 지도부가 참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39) 『彭德懷傳』, 北京: 當代出版社, 1993, p. 23.

40) 주지안룡, 위의 책, p. 255.

41) 서상문, 위의 책, pp. 210~211.

회의가 끝난 후 밤 10시 30분경에 마오는 로신 대사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로신은 다음날인 7일 마오의 결정을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마오는 8일 니즈탕 대사를 통해 김일성에게 중국이 군대를 보내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3.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참전결정 통보

10월 6일 밤 마오에게 중국의 참전결정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 받은 로신 소련대사는 다음날인 7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냈다.

[2318호 전문]

필리포프 :

본직은 북경시간 10월 6일 22시 30분 마오저똥을 예방하고 귀하의 답전을 전하였으며 이에 마오저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1. 마오저똥은 만일 전쟁을 하려면 의심할 바 없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강조함.
2. 중국군의 조선파병에 대해 그는 최소한 9개 사단의 파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와 장비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현재 그들은 훈련받은 포병, 전차병 및 기타 기술병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임.
3. 마오저똥은 공군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표명하였음. 그는 미군은 조선 전장에서 약 1000대의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직 자신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4. 마오저똥은 중국은 공군에 필수적인 무기와 탄약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이 없음을 표명하였음.
5. 마오저똥은 빠른 시일 내에 조운라이와 린바오를 파견하여 귀하에게 중국의 정황과 이러한 생각을 보고해야 하며, 조운라이와 린바오는 10월 8일 출발할 것임.

회담 참가 : 주은래, 우수웬(伍修權), 페도렌코, 회담시간 1시간 45분

로신
1950. 10. 7⁴²⁾

필리포프 :

이 전문은 모택동이 귀하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2318호 전문의 보충임.

필리포프 동지 :

본인과 당 중앙 모두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함. 본인은 이미 평터화이 동지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정치위원으로 임명하였음. 가오깡 동지가 지원군의 보급을 책임질 것임. 그들은 이미 오늘(10월 8일) 새벽 비행기로 봉천으로 떠났음. 부대는 10월 15일 전에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임. 본인은 이미 중국지원군의 조선파병을 김일성동지에게 통보하였음.

조우은라이 동지와 린바오 동지는 이미 오늘 아침 8시 비행기로 귀하의 소재지로 출발하였음.

마오저똥
1950. 10. 8⁴³⁾

이러한 전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은 위의 첫 전문과 2절에서 언급한 A전문이 특히 소련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오가 참전을 위해서는 소련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우은라이와 린바오를 파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스탈린에게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한 당일(8일) 오후 마오는 주 북한대사 니즈랴를 통하여 김일성에게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하는 전문을 보냈다. 김일성은 10월 1일 니즈랴 대사에게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후 그때까지 중국의 참전결정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동 전문의 주요내용은 ① 당면의 정세아래 귀국의 침략자에 대한 투쟁을 원조하기 위해 우리는 지원군을 조선

42) 요약문임.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л. 126-128(1950. 10. 7).

43)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32(1950. 10. 8). 이 전문에 로신은 조우은라이 일행이 17시 43분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였다고 첨부하고 있다.

영내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 ② 평터화이 동지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었음. ③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 가오깡이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 지원업무 및 만주 영내의 조선 원조관련 업무의 모든 책임을 질 것임. ④ 동지께서 곧 바로 박일우 동지를 선양(沈陽)에 파견하여 평터화이와 가오깡 두 사람을 만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에서의 작전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바란다는 것 등이었다.⁴⁴⁾ 그러나 이 전문에는 구체적인 출병일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니즈랴와 차이청원이 마오의 전문을 김일성에게 전하자 김일성은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의 뜻을 마오저똥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에 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⁴⁵⁾ 이는 그 전까지 김일성이 중국의 참전결정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10월 8일 스탈린 역시 중국의 참전 사실에 관하여 김일성에게 통보하였는데 위의 정황으로 보아 스탈린의 전문보다 마오의 전문이 김일성에게 먼저 전달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동 전문에도 역시 구체적인 출병일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마오가 조우스탈린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특히 공군지원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스탈린 역시 이에 대한 보장을 유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김일성이 구원요청을 하였던 10월 1일 이후 이미 참전을 결정하였던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 사실을 전혀 김일성에게 귀뜸조차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즉 주지안룡은 중국이 10월 8일에야 비로소 북한에 참전결정사실을 알려준 진짜이유는 ①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지만 마오는 내심 미국의 함정에 빠져버린 김일성의 무모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 지도부의 참전반대파와 소극파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② 북한지

44) 『毛澤東軍事文獻』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3, p. 111.

45)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2, p. 84.

도부는 전쟁 수행과정에서 중국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③ 미군이 38선을 넘는 것을 참전시기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평양에 설명할 수는 없었다. ④ 중국 지도부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정식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알려줄 수 없었다. ⑤ 이른 시기에 참전의향을 알게 되면 미국에 대한 즉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북한이 이를 선전하고 나온다면 비밀참전의 돌연성이 훼손되어 승리의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할 것, 또한 중국이 파병하기 전까지 북한인민군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등을 들고 있다.⁴⁶⁾

그러나 주지안룡이 제시한 이유들은 상당부분 비이성적, 감성적인 차원에서 도출된 것이며, 과연 국가의 중대결정을 앞둔 마오가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게 참전결정 사실을 8일에야 통보해 준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련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는 마오의 전략에서 볼 때 여전히 소련과의 협상을 앞 둔 상황에서 자신의 참전 결정 사실을 북한에 먼저 통보해 준다면 북한은 바로 이 사실을 소련에 알릴 것이고 그렇다면 협상테이블에서의 자신의 참전결정 보류라는 협상카드와 소련을 대신하여 직접 참전한다는 대 소련 우위적인 입장이 훼손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결국 마오는 중국의 참전결정 사실을 8일 거의 같은 시간에 소련과 북한에 각각 통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참전보류와 최종 참전결정

1. 조우·스탈린 회담과 참전보류

(1) 조우·스탈린 회담

조우은라이와 린뱌오는 10월 8일 베이징을 출발하여 11일 흑해 크림반도에 있는 스탈린의 별장에 도착하였다. 조우와 스탈린의 회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회담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그 하나는 조우은라이가 베이징을 떠나기 전 중공중앙정치국은 여전히 참전에 대하여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우은라이는 파병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것이고,⁴⁷⁾ 다른 하나는 소련에게 중국의 파병결정을 통보하면서 인민지원군의 무기와 장비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고, 특히 소련의 공군지원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다.⁴⁸⁾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한 두 견해를 ‘참전’과 ‘불참전’이라는 ‘상반되는 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⁴⁹⁾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결코 상반된 증언과 주장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조우은라이의 협상전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증언이라 볼 수 있다. 즉 회담 통역을 담당하였던 스저(師哲)는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조우가 파병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스탈린을 설득하는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이를 통역하였을 것이고, 이는 스저에게 ‘파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⁵⁰⁾ 반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행정국 기밀담당비서였던 캉이민(康一民)은 동 회담의 주요목적이 스탈린으로부터 파병에 필요한 무기·장비의 지원과 특히 공군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스저의 증언과 캉이민의 증언은 모두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나온 부분적인 기억이며, 이를 종합해 본다면 모두 협상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회담 당시 조우은라

47) 이 견해는 당시 조우은라이의 통역을 담당했던 스저(師哲)의 기억을 근거로 하고 있다.

48) 이 견해는 당시 중공 중앙위원회 행정국 기밀담당비서였던 캉一民의 기억을 근거로 하고 있다.

49) 주지안룡, 위의 책, pp. 217~222; 셴즈화,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 p. 293 등 참조.

50) 스저, 『在歷史巨人身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p. 496.

46) 주지안룡, 위의 책, pp. 264~265.

이는 중국지도부의 참전반대의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전이 어려운 이유들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군사적 지원, 특히 공군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마오가 2일 스탈린에게 보낸 참전유보입장 전문과 8일 보낸 참전결정 전문의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후일 조우은라이는 자신은 파병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출발했었다고 언급했으며, 그러나 주요목적은 소련의 공군지원확보의 문제였다고 밝힌바 있다.⁵¹⁾

조우은라이는 중국이 이미 파병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파병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는 의미는 소련의 공군지원이 중국의 파병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소련의 공군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어렵다는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0월 2일 참전을 보류하겠다는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마오는 이미 스탈린과의 협상을 준비하였고 조우의 소련방문 역시 계산된 협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일 전문을 포함한 참전불가의 이유를 제시한 모든 중국의 행동은 하나의 협상전략이었을 뿐이며, 그 목적은 참전의 조건으로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고, 특히 소련의 공군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는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조우은라이가 관찰시켜야 할 사안이자 마오의 훈령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이 회담에서 주로 두 가지에 관하여 얘기하였다. 그중 하나는 소련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이유였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이유였다. 스탈린은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차 대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을 원조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조선과 중국 두 전선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중국 동지들은 지금 당장 조선에 대한 원조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들을 설명하였다.⁵²⁾ 또한 스탈린은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중국을 향해 공중, 지상, 해상에서 도발해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⁵³⁾ 이렇듯 스탈린은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영토인 동북지역이 전쟁터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중국에게 명확히 주고 있었다.

하지만 조우·스탈린 흑해회담의 결과는 중국이 잠시 북한에 파병하지 않으며, 김일성에게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국의 직접파병을 촉구하고 있었고 더구나 5일 전문에서 중국의 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스탈린이 조우와의 회담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의 파병 불가를 제의하였을 리는 없으며, 또한 이미 파병을 결정하였고 이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까지 통보한 중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 측 모두의 기존입장에 반하는 회담의 결과는 파병조건에 대하여 양 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양 측 모두가 양보할 수 없었던 쟁점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파병할 경우 소련의 공군지원문제였다.

조우은라이의 공군지원요청에 대해 스탈린은 “중국의 참전에 필요한 군사장비 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소련공군의 지원은 2개월 또는 2개월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곤란하다면 출병하지 않아도 좋다. 북조선을 잃어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중국도 남아있다”고 강조하였다.⁵⁴⁾ 스탈린이 이렇게 북한을 포기하더라도 공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스탈린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52) 위의 책.

53) 위의 책, pp. 496~497.

54) 『周恩來傳(3)』, p. 101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編者,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pp. 165~166 등 참조.

51) 力平, 『開國總理周恩來』, 北京: 中央黨校出版社, 1994, p. 252.

공군기의 타 기지로의 전개곤란 등 소련공군의 출격준비 미비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소련 극동공군은 전투기 2,800대, 전폭기 1,700대, 수송기 500대, 정찰기 300대 등 총 5,3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랴오둥(遼東)반도의 뤼순(旅順)과 블라디보스톡에 공군기지가 있었고, 동북지역에도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비행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타기지의 전개문제를 해결하는데 2개월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⁵⁵⁾ 스탈린이 진정 우려한 것은 소련 공군기가 한반도 전선에서 미군기와 교전하여 격추됨으로써 소련조종사가 포로가 되어 소련의 참전이 노출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미군과 직접충돌 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은 극력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⁵⁶⁾ 스탈린은 남침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위하여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였지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를 생각은 없었다. 더구나 북한정권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충돌의 모험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따라서 스탈린이 공군지원을 회피한 진정한 이유는 미군과의 직접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중국은 당시까지 진정한의미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참전을 하게 되면 공군력은 소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인민지원군 일선지휘관들에게 있어서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당시까지의 중소조약에 근거한 소련공군의 동북지역 진주를 포함한 공군의 지원은 한반도 출동을 포함한 군사행동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러한 인식에서 동북군구의 간부들은 중국 지상군 출동에 ‘소련공군의 보장’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55)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州: 廣州人民出版社, 2003, p. 257

56) 9월 말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지자 스탈린은 북한에 소련공군의 Yak-9 전투기 연대를 주둔시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공중전시 관계가 소련어 무선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첫 공중전이 있을 직후 북한에서의 소련 공군의 활동은 불가피하게 미군에게 발각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를 철회한바 있다. АВІ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81-82(1950. 9. 23) 참조.

57) 중소조약에 근거하여 중국 영공방위와 중국 공군의 현대화에 협력하는 것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공군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회답이 끝난 후 11일 늦은 밤⁵⁸⁾ 조우은라이와 스탈린은 연명으로 다음과 같은 출병보류를 의미하는 전문을 마오에게 보내게 된다.

주북경 소련대사관은 즉시 마오저똥 동지에게 전달 바람.

파병하고자 하는 중국지원군이 무기·장비의 낙후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엄호임무를 수행할 공군은 최소한 2개월 이후에나 배치될 것임. (중략)

위와 같은 이유와 참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중국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국제정세가 유리하더라도 중국군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의 국경을 넘지 않음. 만일 부대가 이미 국경을 넘었다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야 함.
2. 일부 조선군대는 평양과 원산 이북의 산악지대에 방어진을 구축하고, 나머지 군대는 적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전개해야 함. 전시에 징병된 조선인 중 우수한 자와 지휘관은 비밀리에 만주로 이동시켜 만주에서 조선사단을 편성함. 평양과 기타 중요거점에 대한 신속한 소개 작전을 진행.

중국동지들이 중국군을 새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차, 대포, 항공기 등은 소련 측이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임. 귀하의 결정을 기다림.

필리포프, 조우은라이
1950. 10. 11⁵⁹⁾

위의 전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문이 비록 참전보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나 스탈린은 마오가 이미 참전의 결의를 굳힌 상태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은 전문의 말미에 중국군이 필요한 무기와 장비는 소련 측이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58) 이 전문의 발송시간이 11일 새벽이라는 주장(주지안룡, 위의 책, p. 277)과 마오가 받은 시간이 12일 밤이라는 주장(David Tsui, 위의 논문(X), p. 139)이 있으나 로신이 스탈린에게 전문을 전달한 시간이 12일 15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을 발송한 시간은 11일 밤이라고 보아야 한다. 베이징시간으로는 12일 새벽(모스크바와 베이징은 4시간의 시차).

59) В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л. 134-135(1950. 10. 11).

마오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 덧붙이면서 참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마오의 의중을 알고 있던 스탈린이 사실상 마오를 전쟁으로 내몰고자하는 의도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즉 소련 공군은 미군과의 직접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지만 기타 무기와 장비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니 참전하라는 압박 혹은 강요와 같은 것이었다.

(2) 참전보류 결정

10월 9일 평터화이와 가오짱은 인민지원군 군단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련의 공군지원여부가 참전의 중요변수로 떠올랐다는데 있다. 동 회의에서 각 군단의 간부들은 참전하였을 때 공군의 지원여부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평터화이와 가오짱은 연명으로 마오저똥에게 “참전할 경우 어느 정도의 공중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언제 공군을 출동시킬 것인가, 누가 그 지휘 책임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문의하면서 “2~3개월 사이에 새로운 장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특히 공군의 출동이 가능하면) 계획대로 추진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출병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⁶⁰⁾라고 보고하였다.

인민지원군 일선 지휘관들의 이러한 요구는 조우·스탈린 회담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마오에게는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 왔음이 틀림없다.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에서 공군의 엄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오가 모를 리 없었다. 이에 마오는 10일 늦은 밤 마오는 원래 김일성과의 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던 평터화이를 김일성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베이징으로 와서 중앙 정치국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⁶¹⁾ 이는 일선 지휘관들이 제기한 공군지원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⁶²⁾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는 위에서 언급한 조우·라이와 스탈린 연명의 전문을 받아보게 된다. 동 전문은 12일 15시 30분 로신에 의해 마오에게 전달되었으며, 마오는 그 자리에서 로신에게 “당신들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스탈린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⁶³⁾ 인민지원군 일선 지휘관들의 공군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받아 본 ‘소련공군 지원 불가’의 전문에 마오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지원 없이 미군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무모하기 까지 한 것이었다. 이에 마오는 12일 21시 평터화이, 가오짱, 덩화, 홍쉐즈, 한셴추, 세팡 등에게 “10월 9일의 명령(10월 15일 출병)은 잠시 실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니, 제13병단 각 부대는 이전과 같이 현 위치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출동할 필요는 없다. 가오짱과 평터화이는 내일이나 모레 북경으로 오라”⁶⁴⁾는 출병정지 명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마오는 22시 소련대사관을 통해 “본인은 10월 11일 전문의 의견에 동의함. 우리 군대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 본인은 이미 중국 군대에게 조선에 진입하는 계획집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스탈린에게 통보하였다.⁶⁵⁾

여기서 마오가 출병중지명령을 내리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련의 공군 지원 불가’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우·라이와 스탈린이 보낸 11일의 전문에서 스탈린의 메시지는 마오로 하여금 참전을 보류하든가, 그렇지 않고 즉각 참전하든가 소련 공군의 엄호 없이 참전을 결행하라는 것으로서 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과 공중의 엄호 없이 적어도 2개월 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했다. 참전의 결심을 이미 굳히고 있었던 마오였지만 예상되는 일선 지휘관들의 격렬한 반응을 고려할 때 아무런

60) 주지안룽, 위의 책, pp. 269~270.

61) 杜平, 『在志願軍總部』,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p. 34, 주지안룽, 위의 책, p.273에서 재인용.

62) 주지안룽은 이러한 조치가 조우·라이로부터 소련 공군지원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라 주장하는데 동 전문을 받은 시간은 12일 15시 30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주지안룽, 위의 책, p. 273 참조.

63) В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40(1950. 10. 12).

64)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 p. 552.

65) В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41(1950. 10. 12).

조치 없이 출병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마오로서는 일단 출병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는 출병을 재고려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 문제를 다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논의하게 함으로써 일선 지휘관들을 무마하고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마오가 참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마오는 처음부터 한국전쟁 참전을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각적·다차원적인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⁶⁶⁾

11일 조우은라이와 연명으로 마오에게 ‘참전 보류’의 전문을 보낸 스탈린은 12일 김일성에게도 전문을 보내 중국이 파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평양 등 주요거점에서 소개 작전을 진행하고, 방어와 퇴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만주로 들어가서 새로운 조선인사단을 창설하고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⁶⁷⁾ 또한 12일 마오의 출병정지를 통보 받은 스탈린은 13일 김일성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저항을 지속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함. 중국동지들이 참전을 거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지(김일성)는 중국과 소련으로 완전히 소개할 준비를 하여야 함. 모든 병력과 군사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극도로 중요함. 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 보존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지시하였다.⁶⁸⁾ 이 전문은 당일 전달되었으며, 김일성과 박헌영으로서는 뜻밖의 내용이었다. 김일성은 “자신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니 이를 따를 것”이라 말하였다.⁶⁹⁾ 이러한 스탈린의 지시는 다급한 한반도 전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출병중지 결정에 스탈린 역시

66) 주지안룽, 위의 책, pp. 282~283. 그러나 주지안룽은 같은 책 274쪽에서는 ‘이 전문은 마오로 하여금 출병 날짜뿐만 아니라 출병 그 자체를 다시 고려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지가 모순되고 있다.

67) В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л. 142-144(1950. 10. 12).

68) 예프게니, 위의 책, p. 99.

69) 김일성의 반응은 슈티코프에 의해 모스크바 시간 14일 7시에 보고되었다 АВПРОФ, ф. 45, оп. 1, д. 335, л. 3(1950. 10.14).

상당히 다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동 전문에서 스탈린은 “중국동지들이 참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그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

2. 10월 13일 회의 : 최종 참전결정

10월 12일 밤 마오는 조선에 대한 출동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평터 화이와 가오쑹에게 상경하라는 지시와 함께 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⁷⁰⁾ 당일 15시 30분 인민지원군에 대한 소련공군의 지원은 없으며, 중국도 참전을 보류한다는 조우은라이와 스탈린 연명의 전문이 도착하였고, 베이징에 있던 정치국 간부들은 거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회의의 초점은 중국의 참전문제를 재검토하고 최종결정하는 일이었다. 결국 이 회의에서 비록 소련이 공군지원을 지연시키더라도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최종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평터화이가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을 터트렸으나 결국 마오의 참전 결정을 지지 하였다.⁷¹⁾

이 회의에서는 주로 군사전략적 측면과 국가전략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참전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논의의 초점은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어도 단독으로 파병하여 작전이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일선 지휘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의 지상군 파병을 위한 소련의 공군지원이 실제로 불확실한 것이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 한국전 참전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9월 중순이전까지의 중국공군력 강화를 위한 소련의 지원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는 무관한 것이었

70) 13일 오후에 열렸다는 주장도 있으나 12일 늦은 밤 혹은 13일 새벽이라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71) 조우은라이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조우은라이는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레도프스키 목단강 주재 소련 총영사의 보고, 예프게니, 위의 책, pp. 126~127.

다.⁷²⁾ 소련공군이 중국 영공의 방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조약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한국전쟁 참전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며, 인민지원군의 한반도 출병에 대한 소련공군의 지원문제는 10월 초 참전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제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내막을 마오를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잘 알고 있었다.

평더화이는 소련공군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공군지원 대신 무기·장비 등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 참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방어작전 위주로 한국군만을 대상으로 전투를 수행한다는 작전계획, 2개월 혹은 2개월 반 이후에는 소련공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설명을 듣고 출병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평더화이는 즉각적인 전투에 주저하고 있던 인민지원군 일선 지휘관들에게 원래의 작전계획에 따라 단호하게 전투에 돌입하라고 명령하였다.⁷³⁾

10월 7일 유엔총회가 한반도 통일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9일에는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상하는 등 한반도의 전황이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김일성에게 다시 항복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 정계와 군부에서 중국을 멸시하는 발언이 속출하고 있었다. 10월 13일 금천을 점령한 미군과 국군이 평양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 해병 사단이 평양 협공을 위해서 진남포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원산에 집결할 예정이었던 국군 제6, 제8사단도 진로를 바꾸어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었다.⁷⁴⁾ 미군의 북상기세와 미국의 중국경시발언은 중국지도부와 중국국민들에게 미국의 다음 침략대상이 중국이고 동북공업지대의 방위를 위해서라도 군사개입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⁷⁵⁾ 따라서 마오는 참전을 한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군사전략적으로 전략지대와 거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소련의 공군지원과 파병적기를 군사전략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적기를 놓친 파병이 훨씬 더 손실이 클 것이라 예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오는 인민지원군을 대한 소련의 공군지원이 2개월 혹은 2개월 반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마오는 이러한 군사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참전하는 편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국가전략적인 고려가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논리에 회의 참석자 전원이 설득 되었고 결국 만장일치로 이 문제는 결정되었다.⁷⁶⁾ 마오의 이러한 국가전략적인 고려는 회의가 끝난 후 22시 당시 모스크바에 머무르고 있던 조우은라이에게 보낸 다음 전문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정치국 동지들과 상의한 결과 우리 군의 조선출동이 유리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초기 단계에는 오로지 한국군만을 상대할 것이며, 초기단계에 몇 개의 한국군 사단만을 섬멸하면 조선의 형세는 곧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면 중국, 조선, 동아시아, 세계 모두에게 아주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출병하지 않는다면 적군으로 하여금 압록강변까지 접근하게 하여 국내외에 반동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져 각 방면에서 모두 불리할 것이다. 우선 동북지역이 더욱 불리해져 전체 동북변방군은 장차 적군에게 흡수될 것이고, 남만주의 전력도 적군에게 통제당할 것이다.⁷⁷⁾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참전해야 하며, 참전하면 이익이 많고 참전하지 않으면 손해가 극심할 것이라 생각 한다” 이와 함께 마오는 조우은라이를 모스크바에 계속 머물도록 지시하였다.⁷⁸⁾ 이 전문을 전달받은 조우는 또 다시 몇 시간 전까지의 주장을 바꾸어 소련측과 지원군의 출병을 위한 무기·장비의 지원에 관한 새로운 교섭을 해야 했다.

72)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북한의 남침개시부터 지원요청까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pp. 114~117 참조.
 73) David Tsui, 위의 논문(XI), p. 143.
 74) 서상문, 위의 책, p. 220.
 75) 주지안룡, 위의 책, p. 321.

7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국가전략적 고려에 대해서는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국내정치”,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반도분쟁과 중국의 개입』, 서울: 선인, 2012, pp. 109~150 참조.
 77) 당시 아시아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수봉발전소는 동북공업지역 전력의 2/3를 공급하고 있었다.
 78) 당시 소련에 체류하고 있던 조우은라이에게 보낸 전문의 일부이다.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3, pp. 117~118.

또한 마오는 13일 밤 이 사실을 소련대사 로신에게 통보하였으며, 로신은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은 두 전문을 보냈다.

필리포프 :

10월 13일 21시 마오저똥이 본직을 초치하여 아래사항을 언급하였음.

“중공중앙이 필리포프 동지의 최신 전문과 본인의 결정에 대해 재차 논의하였음.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조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로신

1950. 10. 13⁷⁹⁾

필리포프 :

(위 전문의) 보충전문임. 마오저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우리의 지도자들은 만일 미국이 중국의 변경까지 진격해 온다면 조선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은 항상 위협에 노출될 것임.

(중략)

지금 중국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은 유리한 것이며, 중국인은 군대를 파견할 의무가 있음. 우선 9개 사단을 제1진으로 파견할 것이며, 비록 그들의 장비가 열악하지만 이승만 군대와는 충분히 싸울 능력이 있음. 그 동안 중국은 신속하게 제2진을 준비할 것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엄호할 수 있는 공군이 필요하다는 것임. 우리는 공군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기를 희망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2개월 내에는 도착해야 할 것임.(하략)

로신

1950. 10. 13⁸⁰⁾

조우은라이에 의하면 스탈린은 ‘출병한다’는 마오의 전문을 받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무기·장비원조에 관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국의 요청에 응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탈린은 공군지원에 관해서는 소련공군을 중국 영내에 진주시켜

79)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45(1950. 10. 13).

80) АВІРФ, ф. 45, оп. 1, д. 335, лл. 1-2(1950. 10.13). 이 전문은 10월 14일 새벽 1시 38분 모스크바에 접수되었다.

중국 영공의 방위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2개월 혹은 2개월 반 이후에도 조선영내에 들어가 전투에 참가하기는 어렵다고 당초 입장에서 또 한걸음 후퇴하였다.⁸¹⁾ 이러한 스탈린의 태도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스탈린의 한국전쟁 전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오의 참전결정을 통보 받은 스탈린은 이를 곧 김일성에게 “중공중앙이 중국군대가 무기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선동지들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어서 “중국군대의 참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귀하와 중국의 동지들이 협력하여 결정하기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⁸²⁾

13일 회의의 참전 최종결정 이후 14일 마오를 비롯한 평터화이, 가오깡 등 지원군 지휘부는 출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다는 사실과 출병중지명령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출병시기를 15일에서 19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밤 21시에 마오가 조우은라이에게 보낸 전문에는 작전 방침과 함께 출동일시와 작전개시 예정일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인민지원군 전체 26만 병력은 19일부터 10일내에 압록강도하를 완료하고, 28일에 덕천 이남에 거점을 구축한다. 11월 중에 예상되는 적군의 덕천 공격의 시점에 최초의 전투를 개시한다”고 언급하였다.⁸³⁾

VI. 맺는말

마오는 훗날 ‘항미원조전쟁’의 결정은 1.5명이 결정한 것이라 언급한 바

81) 『周恩來年譜(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6, pp. 86~87.

82) АВІРФ, ф. 45, оп. 1, д. 347, л. 75(1950. 10.13); АВІРФ, ф. 45, оп. 1, д. 347, л. 77(1950. 10.14).

83) 주지안룡, 위의 책, p. 328.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참전에 적극적인 마오와 미온적인 조은라이, 즉 조우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찬성은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조우은라이에 대해 마오는 ‘반 표’로 평가했다는 의미이다.⁸⁴⁾ 이 또한 당시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마오의 지위와 역할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10월 4일 회의에 서안에서 늦게 도착한 펑더화이가 회의를 지켜보면서 가오깡과 나눈 대화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오깡이 뒤늦게 도착한 펑더화이에게 “중앙이 이미 조선출병을 결정하였다”고 말하자 펑더화이는 “그런데 왜 아직 토론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⁸⁵⁾

스탈린과 김일성의 지원요청이 있을 후 10월 1일 회의부터 13일 회의에서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참전을 밀고 나간 사람은 마오 혼자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당·정군 전체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마오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마오는 1943년 3월 중공 중앙정치국 결의로 국가의 중대 문제에 관한 최후의 결정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건국 후 마오 스스로도 그 어떤 사안이건 자신이 직접서명하지 않은 명령이나 지시는 모두 무효라고 선언해 놓고 있었다.⁸⁶⁾ 그러나 마오 자신이 국가의 중대 문제결정에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오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내 지도부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이를 청취해오면서 권력의 운용형태가 집단지도체제처럼 작동되고 있었다. 더구나 한국전쟁 참전은 국내의 혁명전쟁과 다르다는 것을 마오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정부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국에서 그것도 세계 최강의 미군과 싸운다는 것은 마오로서도 불안하고 초조하였을 것이다. 마오 자신은 일찍이 참전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참전에 대한 신중론이 존재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러한 신중론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오는 계속해서 고위간부회의를 소집

84) 서상문, 위의 책, pp. 187~188 참조.

85) 楊風安·王天成, 위의 책, p. 81.

86) 위의 책, p. 181.

해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⁸⁷⁾ 특히 최종참전을 결정하는 13일 회의에서 소련공군 지원문제를 제기하며 파병 불가를 주장하는 일선 지휘관들을 인내심 있게 설득해 나갔다.⁸⁸⁾ 그러나 그 배경에는 어떠한 사람도 마오의 권위와 역할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최종결정한 것은 본문에서 보듯이 10월 13일 회의에서였다. 하지만 마오가 언제 참전을 결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또한 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마오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비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마오는 한반도 전황이 역전될 경우 적극적인 대비방안으로 미국의 군사적 승리를 막기 위해 개입할 필요성까지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비록 중국이 북한을 지상군을 파병하여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한반도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황이 역전되어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보적인 측면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록 중국이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이미 한국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한반도 공산혁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안보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⁸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참전을 밀어붙인 마오의 결정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병 적기’와 ‘군사전략적 고려’에 대한 저울질과 함께 국가전략적인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87) 선즈화저, 최만원역, 위의 책, p. 278.

88) 주지안룡, 위의 책, p. 338.

89)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북한의 남침개시부터 지원요청까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p. 123.

참고문헌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전쟁(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6.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북한의 남침개시부터 지원요청까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2013.

_____, “북한의 남침에 대한 소련의 전략과 중국의 동의배경: 소련의 남침 동의부터 남침 개시까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제18집 2호, 2013.

_____,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반도분쟁과 중국의 개입』, 서울: 선인, 2012.

데이비드 쑤이(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X).” 『전략연구』 통권 44호, 2008.

_____,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XI).” 『전략연구』 통권 45호, 2008.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선즈화,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

세르게이 곤차로프,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옮김,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에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한국전쟁의 진말』, 서울: 열림, 1998.

주지안룡 지음, 서각수 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도서출판 역사 넷, 2005.

力平. 『開國總理周恩來』, 北京: 中央黨校出版社, 1994.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3.

外交部外交史研究室, 『當代中國使節外交生涯』 第1輯,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

杜平. 『在志願軍總部』,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李越然. “我在周總理身邊工作的偏斷回憶.” 外交部外交史編輯會編, 『新中國外交風雲』, 北京: 外交部外交史編輯會, 1990.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州: 廣州人民出版社, 2003.

周恩來. 『周恩來文選』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_____.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編著.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

社, 1992.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

師哲. 『在歷史巨人身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張希. “彭德懷受命率師抗美援朝的前前後後.” 『中共黨史資料』 第31號, 1989. 10.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1.

楊風安·王天成. 『駕駛朝鮮戰爭的人』,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彭德懷. 『彭德懷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1981.

_____. 『彭德懷軍事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_____. 『彭德懷傳』, 北京: 當代出版社, 1993.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6.

Chen Ji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4.

АВПРФ, ф. 45, оп. 1, д. 347, лл. 41-45(1950. 9. 30).

АВПРФ, ф. 45, оп. 1, д. 334, лл. 97-98(1950. 10. 1).

АВПРФ, ф. 45, оп. 1, д. 334, лл. 105-106(1950. 10. 3).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л. 126-128(1950. 10. 7).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32(1950. 10. 8).

АВП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81-82(1950. 9. 23).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л. 134-135(1950. 10. 11).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40(1950. 10. 12).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41(1950. 10. 12).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л. 142-144(1950. 10. 12).

АВПРФ, ф. 45, оп. 1, д. 335, л. 3(1950. 10. 14).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334, л. 145(1950. 10. 13).

АВПРФ, ф. 45, оп. 1, д. 335, лл. 1-2(1950. 10. 13).

АВПРФ, ф. 45, оп. 1, д. 347, л. 75(1950. 10. 13).

АВПРФ, ф. 45, оп. 1, д. 347, л. 77(1950. 10. 14).

ABSTRACT

Chinese War Participation Decision Process in the Korean War
: From North Korean Support Request to Participation Decision

Kim, Ok-Joon(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Mao and his staff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after Kim Il Sung asked them to help the war on October 1 by analyzing several important party meetings. First of all, the Chinese leadership had convened five times and discussed issues and concerns during 13 days after the North Korean request. Based upon this analysis, I will resolve the conflicting views among the researchers about two contradictory telegrams sent by Stalin, the Black Sea conference between Stalin and Zou Eun Lai, and the role of Mao with the conference. In conclusion, Mao took an initiative to run the show from October 1 to October 13. This became possible because Mao took a firm control of the domestic politics across the party and military in China at that time.

Keywords : War Participation debate among the Chinese leadership,
Mao's leadership, Black Sea Conference, Soviet Air Force Support

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일: 2013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3일